

큐리오시스

텐베거의 향기(1): 고마진 ODM 사업의 서막

기업소개: 높은 마진이 가능한 바이오 산업의 폭스콘을 꿈꾼다

동사는 생명공학 연구·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랩 오토메이션 장비 기업이다. 광학 및 로봇틱스, 전장 제어, 생산 기술 등 7대 원천기술에 기반한 제조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장의 수요가 높은 고마진(GPM70% 이상)의 제품을 6개월 수준에 개발하고, 자체브랜드와 글로벌 ODM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다.

살펴볼수록 좋다: 확실한 전방산업 수요와 높은 확장성

동사는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써 원천기술을 조합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사양의 장비를 빠르게 설계·제작·출하할 수 있다. 우리가 서브웨이에서 원하는 조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자동화 장비에 요구되는 기술 수준과 개수가 늘어나고 제조 공동화 현상까지 고려할 때 이러한 역량을 갖춘 바이오 제조기업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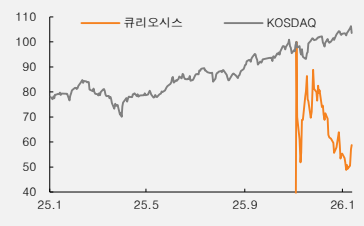
동사는 세포 이미징 영역과 합성생물학 자동화 장비를 개발해 작년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과 ODM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경쟁 제품이 부족한 자동화 성능과 사용자 편의성에도 연간 1,000억~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Best-In-Class 기술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하며 성장해 나갈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동사는 복수의 ODM 고객사를 유치하여 1년에 2~3건의 시장의 니즈가 큰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 세포 이미징, 합성생물학, 세포 분리·농축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Best-In-Class 및 First-In-Class 장비들이 출시될 수 있다. 현재 글로벌 R사 외에 T사, H사, L사, M사 등 다양한 글로벌 대형 생명공학 기업과 논의가 진행 중이다.

‘26년 실적은 글로벌 ODM 공급계약을 체결한 R사항 출고가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화하며 매출 160억원(118% YoY), 조정 EBITDA -18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실적은 R사와의 셀로거 공급계약 중심으로 추정했는데, 콜로니피커 침투 속도가 빨라지거나, 다른 글로벌 기업과 추가 ODM계약 체결 시 실적 개선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12개월 선행 P/S는 23배다. 분야는 다르지만 자동화 기업인 큐리오스바이오시스템즈(331배), 토모큐브(25배)에 비하면 저평가되고 있다.

** 본 자료는 2026년 1월 13일 탐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현재주가(26/01/21)	Not Rated
51,700원	
영업이익(25F,십억원)	-
Consensus 영업이익(25F,십억원)	-
EPS 성장률(25F,%)	-
MKT EPS 성장률(25F,%)	-
P/E(25F,x)	-
MKT P/E(25F,x)	-
KOSDAQ	951.29
시가총액(십억원)	394
발행주식수(백만주)	8
유동주식비율(%)	62.3
외국인 보유비중(%)	2.0
베타(12M) 일간수익률	0.38
52주 최저가(원)	43,000
52주 최고가(원)	88,000
(%)	1M 6M 12M
절대주가	-17.8 0.0 0.0
상대주가	-20.9 0.0 0.0



[첨단의료기기/디지털헬스]

김충현, CFA

choonghyun.kim@miraeasset.com

결산기 (12월)	2022	2023	2024
매출액 (십억원)	5	3	5
영업이익 (십억원)	-4	-7	-6
영업이익률 (%)	-80.0	-233.3	-120.0
순이익 (십억원)	-7	-10	-5
EPS (원)	-2,664	-3,542	-1,287
ROE (%)	72.6	51.4	100.5
P/E (배)	0.0	0.0	0.0
P/B (배)	0.0	0.0	0.0
배당수익률 (%)	-	-	-

주: K-IFRS 연결 기준, 순이익은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NTENTS

투자포인트	3
1.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바이오 제조 플랫폼 기업	3
2. 생명공학 장비도 서브웨이 샌드위치처럼 만들 수 있다면?	7
3. 바이오산업의 폭스콘을 꿈꾼다, ODM 사업을 위한 선제적 CAPA 확장	12
실적 및 밸류에이션	13
1. 실적 추정	13
2. 리스크	16
3. 기업소개	17

투자포인트

1. 세계적으로도 희소한 바이오 제조 플랫폼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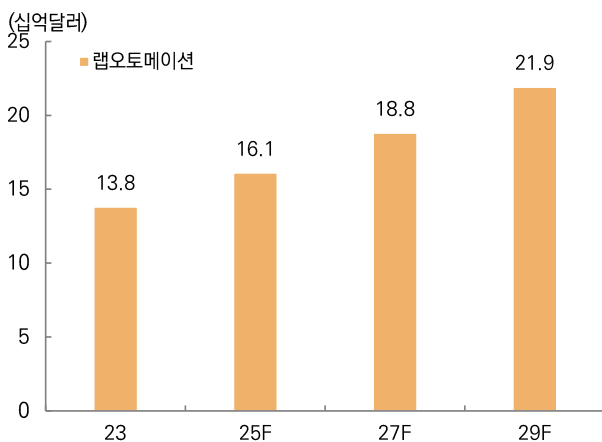
생명공학 시장의 자동화 열풍이 거세다. 생명공학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대량·반복 실험, 고처리량(HTS)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작업으로는 오염·재현성·속도·속련도·비용 문제가 발생하며, 인건비는 갈수록 치솟고 있다. GMP 환경에서 실시간 QC가 요구되는 실험도 증가하고 있다. 생명공학 자동화 장비 시장은 2022년 128억달러에서 매년 8% 성장하며 2029년에는 21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명공학 장비 시장은 소수의 블록버스터 장비에 의존하는 시장이 아니라 분야에 따라 수많은 장비가 모여 형성되는 시장이다. 생명공학 장비에 적용돼야 하는 기술 종류가 많아지고, 기술 수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기업은 원하는 제품을 정의한 뒤, 그에 필요한 원천 기술과 부품을 역으로 개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품 하나당 개발 기간이 3~5년이 소요된다.

또한, 시장을 이끌어 가는 글로벌 대형 기업들도 자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기보다는 M&A를 통해 기술을 확보해 왔고, 선진국일수록 제조 공동화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적 기술을 확보한 제조 기업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사는 국내 유일의 광학 기반 바이오 제조 플랫폼 기업으로써, **외주나 범용 부품의 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세포 이미징에서 합성생물학 기반 공정에 필요한 장비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밸류체인을 100% 내재화**하여 글로벌 생명공학 장비시장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위치를 확보하였다.

그림 1. 부상하기 시작한 랩 오토메이션 산업



자료: BCC Research,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큐리오시스의 플랫폼 기술의 집약체, Curiosystems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동사의 제조 플랫폼은 CurioSystem이라고 불리며, 광메카트로닉스 및 세포분리, 기구설계, 전장제어, 소프트웨어 및 생산기술 등 7가지의 원천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① 광메카트로닉스 기술 및 ② 세포 분리 기술은 윤호영 대표의 박사학위 주제로 20년 넘게 연구개발 지속하여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③ 기구 설계 기술은 주요 임직원 상당수의 전공이 기계공학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내재화했다. ④ 전장 제어 기술과 ⑤ 소프트웨어기술은 M&A를 통해 확보했다. 특히 글로벌 생명공학 장비 기업들이 외주에 의존하는 전장제어기술은 내재화한 것뿐 아니라 업계 최초로 싱글 보드 기반 전장 제어를 구현할 정도로 기술 고도화(Best-In-Class)에 성공했다.

⑥ 금속을 사출할 수 있는 양산 및 생산기술도 내재화하고 있다. 동사의 양산 기술인 CurioFactory는 테슬라의 하이퍼 캐스팅과 유사한 기술로 금속 사출 기반의 제조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제조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동사의 주요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은 70% 이상에 달한다. 이뿐 아니라, 다른 기업이 구현하기 어려운 폼팩터를 구현할 수 있고, 제품의 재현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⑦ 이 모든 기술을 하나의 장비 안에서 통합(Integration)할 수 있는 역량도 빼놓을 수 없다. 외주나 범용 제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빠르고, 고객사 대응에 빠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동사는 창업 단계부터 양산을 전제로 한 설계를 반복해 왔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양산 경험과 수율 관리 능력이 기술적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지난 10년간 동사는 제조 플랫폼을 고도화시켜 왔고, 동사의 원천 기술을 취사선택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높은 수율과 빠른 시간안에 양산까지 도달할 수 있다. 그러한 사례가 잘 드러나는 것이 글로벌 생명공학 장비 기업인 R사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Live-cell Imaging 기기와 Colony Picker다. R사와 MOU 체결 이후 Live-Cell Imaging 장비는 8개월 만에, 콜로니 피커 장비는 11개월 만에 출시되었다.

동사는 제조 플랫폼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생명공학 장비 기업들의 자동화 장비 수요에 기반한 ODM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생명공학 장비 시장에서 세포 이미징과 합성생물학을 중심으로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바이오산업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고정밀 계측, 자동화 분석, 산업용 검사 등으로 확장할 잠재력이 있다.

표 1. 제조 플랫폼 CurioSystem를 구성하는 7대 원천 기술

기술명	기술 설명	획득 경로	비고
CurioMoptics	광메카트로닉스 기술	창업자 박사학위 주제	Optical Moving Type 저전력 광학계
Filterless-Filter	세포분리 기술	창업자 박사학위 주제	전혈로부터 백혈구를 분리하는 유일한 상업기술
CurioBoard	전장제어 기술	유메카 합병	업계최초 Single Board Computer 적용 제품 개발 전자회로 설계 및 정밀 제어 기술
CurioLogics	소프트웨어 기술	유메카 합병	임베디드 HW/SW, Firmware 이미지 프로세싱
CuroAMD	기구설계 기술	자체 구현	기구 설계
CurioFactory	생산기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력 연구	하이퍼캐스팅(금속사출 기술)
CurioIntegration	통합 기술	자체구현	통합 아키텍처 및 설계 최적화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Q) 큐리오시스는 어떤 회사인가?

A) 우리는 랩 오토메이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다. 단위 작업 자동화 장비(TTA)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전 공정 자동화(TLA)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주력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세포 기반 공정에 사용되며, 향후 바이오의약품 관련 합성 생물학 공정, 나아가 바이오가 아닌 자동화 수요가 있는 다른 섹터까지 확장하고자 한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실험·제조 자동화 분야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모든 밸류체인의 핵심 기술을 모두 확보하여 100% 내재화한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우리의 원천기술을 CurioSystem이라고 부른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산업에서 이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매우 드물다. 우리의 기술을 취사선택해 고객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여 높은 수율로 양산할 수 있으며, 고객사가 원하는 신제품을 6개월 내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자부한다.

Q) 원천기술을 어떻게 확보했나?

A) 우리가 확보한 7개의 핵심 기술 중에서 광메카트로닉스와 세포설계기술은 창업자의 석박사 전공 연구 분야다. 전장제어 기술은 유메카라는 기업을 인수하며 확보하였다. 유메카는 임상용 부사장 및 박영호 상무가 창업했던 기업이다. 통상 글로벌 생명공학 장비 기업들이 전장제어는 외주를 맡기는데, 우리는 내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제품 품질상에서 이점이 크다.

생산 역량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과 협업으로 확보했으며, 특히 우리 주요 경영진이 과거에 몸담았던 기업에서 몇천 대 수준의 양산 경험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기술이 각 분야에서 Best-In-Class라고 자부하며,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현될 수 있게 각 기술을 통합할 수 있는 Integration 역량까지 보유하고 있다.

그림 3. 큐리오시스의 주요 경영진

업계 최고 수준의 C-Level 인력 확보

▶ 주요 경영진

윤호영 대표이사 | CEO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 (PhD)

- 큐리오시스 대표이사
- 포 Cytosystems, Inc. 대표이사
- 포 Harvard University 박사후 연구원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임창용 부사장 | CRO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 (PhD)

- ㈜유메카 대표이사
- ㈜인벤트스 연구소장
- 2008년 제15차 창업실상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박영호 상무 | CTO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박사 (PhD)

- 2024년 창업실상 기술혁신상
- 2024년 37차 창업실상
- 2024년 산업생명공학부문 표창
-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수료생
- ㈜유메카(현)연세대학교 석사
-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사

안희돈 부사장 | CSO
University of Akron, MBA

- ㈜유메카(현)유메카 상무이사
- ㈜노노엔에 상무이사
- ㈜비올라바이오 공동창업자
- 포 Akron 대학교 재료공학 석사

허대성 부사장 | COO
경희대학교 화학과 석사

- ㈜노노엔에 상무이사
- 2019년 제14차 창업실상

조병관 사외이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 (PhD)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생명과학과 교수
- 포 경북대학교 수석연구교수 겸 연구교수
-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연구교수
-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사교수 겸 연구교수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공학석사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수많은 장비들로 구성되는 생명공학 장비 시장

Life Sciences Solutions Revenue: \$15.7B			Specialty Diagnostics Revenue: \$5.5B		
Genetic Sciences SeqStudio Flex genetic analyzer AccuLine system point-of-care PCR molecular testing TapPath COVID-19 RT-PCR kit	Biosciences QuantStudio 7 Pro Real-Time PCR Systems KingFisher Apex System automated sample prep	BioProduction TTI GeneArt CRISPR gene editing TrueBio Discovery Automation System HyPerformance DynaDrive Single-Use Bioreactor Cell Culture Media and reagents	Clinical Diagnostics B.R.A.H.M.S. PCT isotherms AccuMix Multi-Analyte Control Phasida 200 Drugs of abuse immunoassays SureTest PCR test antimicrobial pathogen testing Susceptibility testing	Immunodiagnosics ImmunoCAP allergy and EIA immunoassay tests Phasida 200 Drugs of abuse immunoassays SureTest PCR test antimicrobial pathogen testing Susceptibility testing	Transplant Diagnostics AllType i FastPath NGS assays LatScreen Antigen assay platform Healthcare Market Channel
Analytical Instruments Revenue: \$8.2B			Laboratory Products and Biopharma Services Revenue: \$16.7B		
Chromatography & Mass Spectrometry Orbitrap Exploris 480 MS Vanquish Horizon UHPLC System Instrument and Enterprise Services	Electron Microscopy Orsayon Exploris MX mass spectrometer Krios R1 Cryo-TEM Spectra Ultra S/TEM Liquor Measurement and Control System	Chemical Analysis Nilon Apollo Handheld L80 Analyzer TSX Series Ultra-Low Freezers Nalgene/Nunc Labware Research & Safety Channel	Lab Equipment & Consumables CryoMed Controlled-Rate Freezers Nalgene/Nunc Labware E-ClotTip Electronic Plate system Research & Safety Channel	Pharma Services GP PRO Centrifuge Clinical Research Services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Mirae Asset Securities Research 5

Q) 우리와 같은 제조 플랫폼을 구축한 경쟁사가 등장하기 어려운가?

A) 생명공학 장비 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이며, 양산까지 기술력을 끌어올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스타트업들이 데스밸리(Death Valley)를 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룩하기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제조 역량을 보유한 스타트업은 드문 것이 현실이다. 제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정말 드물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우리 같은 기업이 등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그들 입장에서 AI이나 드론 같은 더 매력적인 일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글로벌 대형 기업들도 M&A로 신기술을 대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의 CurioSystems는 10년간 약 200억원 이상이 투자되어 완성된 플랫폼이다. 총 130건(등록 51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우리는 개별 기술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 능력이 없다면 제품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런 점에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시도하기에도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또한, 요즘 글로벌 인력 트렌드를 고려하면 2~3년간 이직하지 않고 한 기업에서 쫓 지내는 일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의 가장 큰 무형자산은 우리 임직원이 서로의 역량을 잘 아는 선후배이자 동료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엄창용 부사장, 박영호 상무는 모두 우리 실험실 선배다. 안희돈 부사장과 허대성 부사장은 내 지도교수님이 창업한 기업 출신이다. 주요 간부들도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동료들이다. 임직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환경과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전략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너지가 있다.

만약 경쟁기업이 등장하더라도 5~6년의 격차는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사이에 빨리 성장해서 더 격차를 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7대 원천기술에 더하여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내재화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도화된 AI 기술을 Best-in-class 수준으로 끌어올려 제품에 탑재할 계획이다.

2. 생명공학 장비도 서버웨이 샌드위치처럼 만들 수 있다면?

동사의 원천기술을 활용해 탄생한 핵심제품은 이미 글로벌 대형 생명공학 장비 기업과 ODM 계약을 체결한 대용량 자동화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인 Celloger와 합성생물학 영역에서 자동화 미생물 배양 검수 및 분리 장비인 Colony Picker다.

동사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장비인 Celloger는 살아있는 세포에 대한 대용량 스크리닝이 가능한 자동화 장비로 '인큐베이터 내 동작 + 고정밀 온도 제어 + 저전력(10W) 기술'이 집약된 세계 유일의 장비다. GMP 환경에서 요구되는 멸균성과 안전성이 갖추고 있어 사실상 GMP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군이라는 잠재력도 갖추고 있다.

기존 기술은 결로 문제와 스테이지 무빙 방식으로 인한 부유 세포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동사의 솔루션은 세포를 배양하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인큐베이터 내부 온도($37\pm0.1^{\circ}\text{C}$)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다. 전 세계 30개국에 500대 이상이 출하 되었음에도 단 한 건의 결로에 의한 반품이나 클레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플레이트를 고정하고 광학계 전체를 이동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면역세포·스페로이드·오가노이드 등 부유 세포를 관찰할 수 있고, 자동화 로봇팔과 연계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Colony Picker는 효모,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 기반 합성생물학에서 필수적으로 반복되는 콜로니 선별 및 검증 공정의 사실상 유일한 자동화 장비다. 200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작은 콜로니의 조기 검출과 고속 피킹 능력이 실험 실패율 감소, 반복 실험 축소, 프로젝트 기간 단축으로 직결될 수 있어 생산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다. 세계 최초 96-pin 전동식 독립 제어 (모터 기반), 3,490 colonies/hr, 자동 핀 보정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동사는 콜로니피커가 시장에 안착하면, 앞 뒤단 공정의 제품까지 확장할 계획이 있다.

재밌는 사실은 상술한 동사의 제품의 경쟁 제품은 자동화 성능이 부족하고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지더라도 각각 연간 1,000억~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동사는 기존 경쟁 제품보다 상당히 앞선 자동화 기술과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Best-in-Class 제품이라는 점에서 기존 제품을 대체하며 성장해 나갈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5. 셀로거의 장점

HCS	구분	HTS
*High-Content Screening		*High-Throughput Screening
살아있는 단일 세포 단위 (Single-cell level)	주분해대상	기본: End-point 분석 Celloger™ M: 살아있는 세포
신약에 세포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분석	주사용목적	특정 표적에 반응하는 세포의 다양 선별
고해상도 정밀 분석	요구성능	대량 고속 자동화
상대적으로 느림 (시간당 1개~10개 수준)	샘플처리속도	대량 처리 (시간당 600~2,300개)
세포 형태·단백질 상호작용 자동 해독·분석 등 다차원 분석	장점	빠른 처리 속도·저렴함, QC 등 선별적 적용성
CellSight CX7 (ThermoFisher), ImagePress (Molecular Devices), Opera Phenix (PerkinElmer) 등 다수	대표 제품	Celloger™ M series (큐리오시스)

HCS의 분석 대상인 살아있는 세포의 형태 및 세포 내 변화 등을 고해상도로 분석하여 복합적이고 다면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사용

신약개발 시 HTS로 효율성과 속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후보 물질을 골라내는 데 유용하며, HCS를 보완적인 장비와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에 초점을 두는 후보 물질의 효능을 더 깊게 이해하는 데 유용함. 두 기술은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음.

기존의 HTS는 플레이트를 옮기는 등의 단순 대형 정밀도 도출에 주로 이용
→ 57나노미터 분석 요구 등에 따라 라이브셀 이미징을 HTS 분석 요구 증가

*HCS 이미지 출처 Single cell analysis: Imaging is everything, Nature 2011

그림 6. 콜로니 피커의 장점

완전 전동식 핀 제어 방식 적용 고정밀(99% 이상 정확도), 고속(3,490 colonies/hr) 콜로니 피킹 시스템

완전 전동식 핀 제어 방식 적용

기존 공압(Pneumatic) 핀 제어 방식

큐리오시스의 정밀 모터제어(Fully motorized) 방식

- 개별 핀 높이 제어 불가능
- 콜로니가 비정규적인 이기(Agar) 표면이 불규칙하거나 기울어진 플레이트에서 작동 불가능
- 공기압축기 사용으로 인한 장비 소음, 마모, 유지보수 비용 증가
- 개별 핀 속도 제어 불가능
- 개별 핀 높이 제어 가능: 약 40μm의 분해능
- 불규칙한 표면을 가지는 이기(Agar) 및 기울어진 플레이트에서 작동 가능
- 공기압축기 미사용으로 소음, 유지 보수 등의 이슈가 적음
- 개별 핀 속도 제어 가능: 핀 다수/단일 속도 제어로 콜로니 비산 방지 가능

고정밀 자동 표본 보정 시스템

기본 수동 보정 방식

- Agar에 핀 직접 고정 → 개체와 위치 수동으로 맞춰 개체와 핀 간 좌표 보정
- 단일 핀 기준으로 여러 핀 위치 보정 → 누락/오작동 가능
- 큰 시간/노력, 작업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크로스레이저 기반 자동 보정 시스템

- 육안적인 크로스레이저 기반의 자동 보정 시스템 개발
- 수동 방식에 비해 매우 높은 정확도, 큰 보정량 한도 → 1000개 이상의 핀 보정 가능
- 크로스레이저 센서 모듈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Vision 프로세서로 픽처 보정 시스템을 진행

정밀 제어 대비 5배 이상 높은 고정밀 해상도 (100 pixels/mm)

Low resolution

- 작은 콜로니 조기 검출 불가
- 저해상도(22 pixels/mm)에서는 200μm 콜로니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 400μm 크기 구별이 어려움

큐리오시스의 High resolution

- 작은 콜로니 조기 검출 능력 (선형 해상도 100 pixels/mm)
- 최소 콜로니 사이즈 100~200μm 분해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동사는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이다. 동사는 상술한 2개의 핵심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하려는 기업이 아니다. 동사는 1~2개의 스타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에 대응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한다.

동사는 이미 원천기술을 조합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다양한 사양의 장비를 빠르게 설계·제작·출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었다. 우리가 서브웨이(Sub-way)에서 원하는 조합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동사는 1년에 2~3건의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술한 제품 외에도 합성생물학, 세포 분리·농축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에 맞는 장비들이 출시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하나하나의 실패 리스크까지 경감시킬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등장할 동사의 제품들이 상당히 마진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라는 것이다. 생명공학 장비 시장은 이제 개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니즈가 크고, 상대 회사가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제품 기획 및 ODM 협상 단계부터 고민한다. 현재 동사의 제품의 매출총이익률(간접 원가 제외)은 70~80%대에 이른다.

결론적으로 동사의 진정한 가치는 고마진의 시장친화적인 제품들이 다수 등장할 수 있는 잠재력에 있다. 실제로 이미 ODM 계약을 맺은 R사 외에도 T사, H사, L사, M사 등과 협업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R사는 이미 2개 장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신제품 개발에 대한 협의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협의가 이뤄지는 고객사도 여러 장비에 대한 복수의 ODM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그림 7. 고객사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개발과 양산이 가능한 플랫폼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Q) 우리의 신제품 전략과 공개할 수 있는 신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A) 우리는 1년에 2~3건의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신제품 전략은 단순한 라인업 세분화가 아니라, CurioSystem이라는 통합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분석·측정 작업을 하나씩 제품군으로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은 인큐베이터라는 가장 까다로운 환경 안에서 정밀 광학, 기구, 제어,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통합해 다양한 작업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이다. 셀로거라는 살아있는 세포 이미징 장비는 이 통합 역량을 가장 먼저 구현한 사례일 뿐, 최종 결과물이 아니다.

인큐베이터 내부는 열과 습도가 엄격히 제어되어야 하고, 발열이 거의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전기·전자 장비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구동해야 하는 매우 극한의 조건이다. 이 환경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은 배양·분석이 이루어지는 다른 환경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 흡광·형광·발광 등 광학 신호를 장기 배양 중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플레이트 리더, 배양 중 pH, 대사 변화, 특정 바이오마커를 광학 기반으로 모니터링하는 센서, 세포 성장, 이동, 반응성에 대한 정량 분석 장비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콜로니 피커는 이미지 기반 인식, 정밀 위치 제어, 미세 핸들링을 결합해 '대상 중 원하는 개체를 선택적으로 집어내는(selective picking)' 공정을 자동화한 장비다. 현재는 콜로니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미세 조직 조각, 세포 집합체(오가노이드, 스페로이드 등), 단일 세포 등으로 확장이 가능하며, 궁극적으로는 cell picker, micro-sample picker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다. 즉, 콜로니 피커는 특정 대상(콜로니)에 한정된 장비라기보다는, 이미지 기반 선택·분리 공정을 자동화하는 플랫폼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다음으로 디지털 병리 장비는 정밀 광학, 스캐닝, 대용량 이미지 처리, 안정적인 반복 동작이라는 CurioSystem의 핵심 역량이 '배양 환경'이 아닌 '조직 슬라이드 분석 공정'으로 확장된 사례다. 디지털 병리는 단순히 슬라이드를 스캔하는 장비를 넘어서, 장기 보관 슬라이드의 안정적 고속 스캔, 특정 영역의 반복 관찰, 병리 판독을 위한 정량 데이터 추출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향후에는 AI 분석 시 표준화된 입력 장비의 역할까지 포함한다.

상술한 3가지 제품은 서로 다른 제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통합 기술이 공정만 바뀌며 반복 적용된 결과물이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당사는 개별 제품의 성공 여부를 넘어 새로운 공정이 보일 때마다 장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장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Celloger는 배양 중 관찰·분석 공정으로의 확장이고 (특히 인큐베이터 내 구동), CPX는 선택·분리(picking) 공정으로의 확장이며, 디지털 병리는 조직 기반 분석 공정으로의 확장이다.

Q) 혹시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솔루션을 개발한 사례도 있는가?

A) 세포 농축·분리 장비인 Cellpuri가 있다. 원심분리기 없이 Filterless-Filter 기술을 활용해 세포 농축·세척하는 First-in-class 기술이다. 향후 세포치료제 생산의 전·후단 공정 자동화에 사용될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한다.

Q) 합성생물학 영역에서는 어떤 기회가 있을까?

A) 합성생물학의 핵심인 DBTL(Design-Build-Test-Learn) 사이클 전반에서 자동화 요구가 매우 크다. 대표적으로는 반복적인 액체 처리 공정에 대한 자동화 수요가 크다. 배양, 분주, 희석, 시약 혼합 등은 합성생물학 실험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이지만, 여전히 인력 의존도가 높아 리워드 핸들러는 필수적인 자동화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배양 이후의 검증 단계에서도 자동화 수요가 크다. 변이체를 선별한 이후, 이들이 실제로 어떻게 성장하고 반응하는지를 장기간에 걸쳐 확인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배양을 유지한 채 관찰·측정·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Celloger와 같은 장비는 이 Test-Learn 단계의 자동화를 담당한다.

여기에 더해, 공정 간 샘플 이동, 장비 간 연계, 데이터의 연속적 축적과 같은 워크플로 차원의 자동화 역시 중요한 수요로 부상하고 있다. 합성생물학이 바이오 파운드리로 진화할수록, 개별 장비 하나보다는 전 공정을 연결하는 자동화 구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Q) 셀로거는 GMP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A) GMP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장비 사용 전후뿐 아니라 운용 과정 전반에서 멸균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기존 라이브셀 이미징 장비는 장기적인 멸균 안정성 확보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GMP 관점에서 설명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히 GMP 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장비라는 의미가 아니라, GMP 환경에서 요구되는 멸균성과 안정성을 실제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는 것이다. 향후 GMP 시설에서 세포를 최종 제품으로,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단계에 오면 셀로거 제품이 표준화 프로세스(Standard Operating Process, SOP)에 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Q) 콜로니 피커의 잠재력을 설명한다면?

A) 합성생물학에서는 궁극적으로 전 공정 자동화가 필수이며, 이 과정에서 바이오 파운드리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 파운드리는 설계-제작-검증-학습(DBTL) 사이클을 자동화로 구현하는 합성생물학의 핵심 인프라다. 콜로니 선별 자동화는 바이오 파운드리 워크플로의 필수 구성 요소다. 콜로니 피커는 바이오 파운드리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우리는 국내 유일의 콜로니 피커 제조사다.

또한, 콜로니 피커는 합성생물학 외에도 박테리아·효모 균주 개발, 산업용 발효 및 효소 생산, 백신·바이오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 식품·환경·바이오 소재 연구 등 미생물을 다루는 다양한 연구·산업 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Q) 고마진 제품 개발이 지속 가능한가?

A) 애초 제품 기획 및 ODM 협상 단계부터 높은 마진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장비 시장은 이제 개화되기 시작한 시장으로, 시장의 니즈가 크고, 상대방 회사가 잘 팔 수 있는 제품을 고민한다.

우리와 ODM 파트너와의 관계는 파트너 관계에 가깝다. ODM 파트너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우리가 개발해 주면,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침투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고객에 대한 유통망을 제공하는 식이다. 또한 우리는 7가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 제품 개발과 양산에 강점이 있다. 이는 경쟁자가 따라오기 어려운 영역이다.

Q) 생명공학 시장의 특성상 너무 혁신적이면, 시장 침투 속도가 느릴 수 있지 않나?

A) 동의하는 부분이다. 우리가 생산한 제품이라도 셀로거 같은 시장 수요를 바탕으로 개발한 Best-In-Class 제품은 비교적 시장 침투가 용이하고, 공급 측면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셀퓨리 제품처럼 시장의 관습을 바꿔야 하는, 이른바 First-In-Class 제품은 말씀하신대로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또한, ODM 회사와 함께 시장 테스트 및 양산 프로세스(QC 및 GMP 여부 등)를 확립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여 ODM 공급 계약 체결 시기를 예상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First-in-class 제품의 특성상 시장 진입 시 선점효과 및 독점 효과가 있어서 꾸준히 공급을 위한 연구개발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Q) 토모큐브나 큐리오스바이오시스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A) 토모큐브는 홀로그래피 기반 3D 이미징이라는 명확한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다. 이미징 자체의 깊이에 강점이 있다. 큐리오스바이오시스템은 특정 공정이나 처리 단계에서 자동화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반면 저희는 단일 공정 장비가 아니라 여러 공정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지향한다. 단일 기능 장비를 덤프트럭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여러 차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물류 시스템에 가깝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

Q) 바이오 외 다른 산업으로 확장 가능성은?

A) 우리가 보유한 정밀 기구·광학·전장 설계 기술은 세포 기반 공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고정밀 계측, 자동화 분석, 산업용 검사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세포 기반 워크플로우에 집중하고 있지만, 플랫폼 자체는 더 넓은 응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3. 바이오산업의 폭스콘을 꿈꾼다, ODM 사업을 위한 선제적 CAPA 확장

동사는 핵심 비즈니스모델인 글로벌 대형 생명공학 기업과의 적극적인 ODM 유치를 위해 선제적으로 생산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글로벌 대형 생명공학 기업들은 ODM 계약 체결 시 제품의 설계 역량뿐 아니라, 일정 수율·품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양산 체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독립된 생산공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동사는 용인 공장(1,200평)을 중심으로 연간 약 1,000억 원(제조라인 15개, 연간 제품 7,500개 및 소모품 5백만개) 수준의 생산 역량을 확보했으며, 2027년까지 매출 2,000억원(제조라인 32개, 연간 제품 17,500개 및 소모품 1천만개) 수준까지 대응할 수 있는 공장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동사는 ODM별 개별 라인배치가 가능한데, 현재 생산공장을 4개 구획으로 구분하여 한 번에 4개 기업의 ODM 물량을 소화할 수 있으며, 향후 추가 증설이 완료되면 7~8개 ODM을 한 번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Q) 현재 매출 수준에 비해 너무 이른 CAPA 확장 아닌가?

A) 생명공학 장비 시장은 한두 개의 블록버스터 제품으로 형성된 시장이 아니라 몇백억~몇천억 원하는 여러 장비가 모여 형성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ODM 수요가 늘어날 때 대응을 못하는 리스크와 수주를 못 해 비용만 늘어난 리스크를 비교해 본다면,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했다.

보통 생산 시설이 완공되어도 안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려면 1년 이상 소요된다. 게다가 생산 시설을 확장하는 데 공사비가 그렇게 크게 들지 않았다. 2단계 확장에 30억원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감가상각비가 1년에 1억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3단계까지 확장되면 감가상각비가 지금보다 연간 약 2~3억원 정도 증가하는 셈이다. ODM 계약으로 인한 매출 증가를 고려할 때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 사람 심리가 공간이 있으면 어떻게든 채우게 되는 것 같다.

그림 8. 선제적 CAPA 확대 전략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실적 및 밸류에이션

1. 실적 추정

동사의 2026년 매출은 글로벌 ODM 공급계약을 체결한 R 사항 출고가 중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며 **전년 대비 119% 증가한 16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4Q25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2026년은 매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6년 실적은 R사와의 셀로거 공급계약 중심으로 추정하였는데, **콜로니피커 침투 속도가 빨라** 지거나, 다른 글로벌 기업과 추가 ODM 계약 체결 시 실적 개선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조정 EBITDA는 외형성장에 의해 전년 대비 적자 폭이 많이 감소한 -18억원을 예상한다. 동사는 매출 약 300억 원까지 현재 인력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및 연구개발 구조로 되어 있다. 기존 플랫폼에서 모듈화 혹은 응용되는 방식이라 연구개발 비용 증가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외형성장이 진행될수록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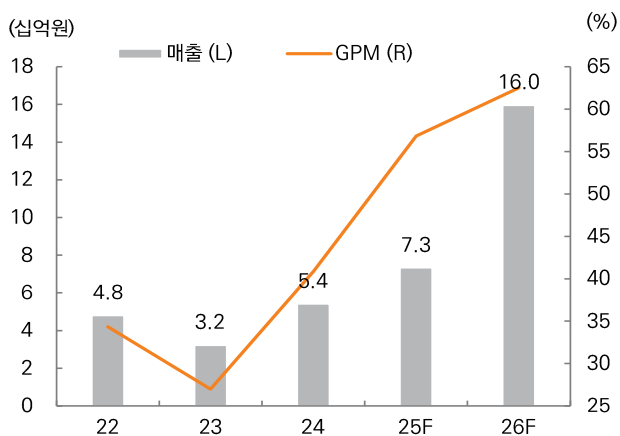
표 2. 분기별 실적 전망표

(십억원)

	1Q25	2Q25	3Q25	4Q25F	1Q26F	2Q26F	3Q26F	4Q26F	2025F	2026F	2027F
매출액	1.5	1.9	1.2	2.7	3.1	3.5	4.2	5.2	7.3	16.0	25.8
조정 EBITDA	(1.6)	(1.0)	(1.9)	(2.1)	(0.9)	(0.4)	(0.5)	0.0	(6.6)	(1.8)	2.4
영업이익	(1.8)	(1.3)	(2.1)	(2.3)	(1.3)	(0.8)	(0.9)	(0.4)	(7.5)	(3.3)	0.1
매출 성장률(%)	60.6	47.7	(25.3)	66.6	104.6	78.6	269.1	92.2	34.9	119.1	61.5
조정 EBITDA 마진 (%)	(103.7)	(53.9)	(161.5)	(77.1)	(28.1)	(11.8)	(11.4)	0.4	(89.8)	(10.9)	9.2
영업이익률 (%)	(119.3)	(68.4)	(180.7)	(85.4)	(40.0)	(22.8)	(20.5)	(7.2)	(103.1)	(20.5)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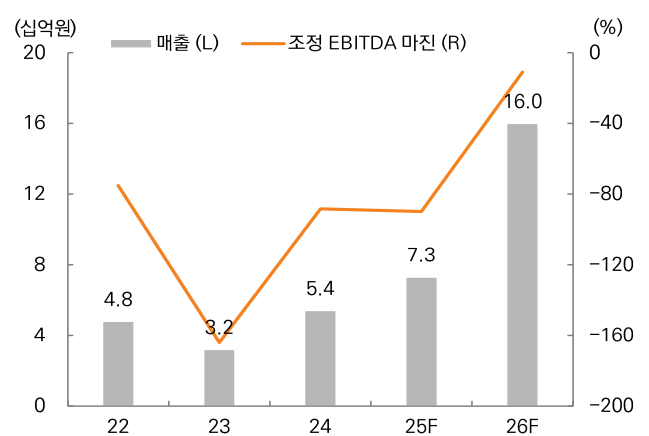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매출 및 매출총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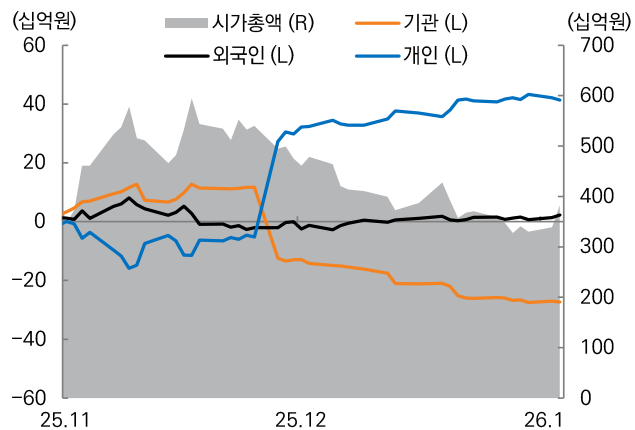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매출 및 조정 EBITDA 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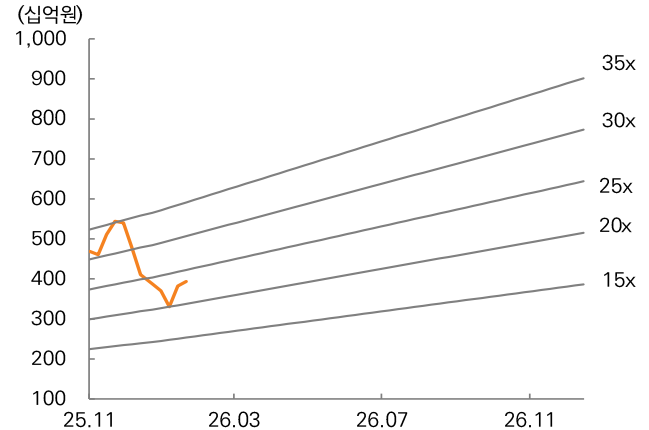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투자자별 순매수량 vs. 시가총액 추이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12개월 선행 P/S밴드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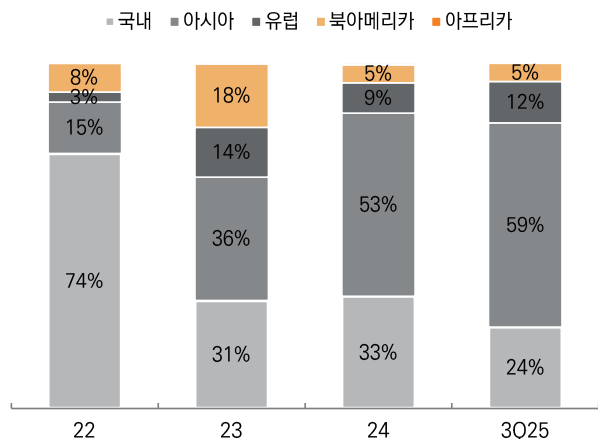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Global Peer Valuation

회사명	시가총액 (십억원)	영업이익률 (%)			PER (배)			P/S (배)			ROE (%)			매출(십억원)		
		24	25F	26F	24	25F	26F	24	25F	26F	24	25F	26F	24	25F	26F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341,690	17.1	22.8	23.3	32.8	27.2	25.1	5.4	5.2	5.0	20.1	23.8	21.9	58,503	65,250	68,614
다나허	243,167	20.4	28.1	29.1	40.6	30.3	27.7	6.9	6.8	6.5	20.9	23.7	22.2	32,575	36,114	37,556
머크 그룹	93,162	17.1	18.8	18.8	18.3	15.0	15.0	2.5	2.6	2.5	9.9	10.5	10.5	31,221	36,158	36,590
자르토리우스	28,987	11.6	16.2	18.8	106.3	40.1	35.4	3.7	4.8	4.4	18.4	20.8	19.0	4,989	6,068	6,509
Revvity	18,638	12.6	27.3	28.0	45.2	22.7	21.0	4.7	4.5	4.3	15.6	17.7	16.7	3,757	4,192	4,321
Keyence	134,590	51.9	51.0	51.8	35.3	34.2	30.1	13.3	12.7	11.4	21.3	22.0	19.4	9,666	10,591	11,814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2,111	(291.6)	-	-	-	-	-	472.1	-	-	-	-	-	5	-	-
Ginkgo Bioworks	804	(246.5)	(172.9)	(136.4)	-	-	-	2.7	3.2	3.1	-	-	-	310	251	259
큐리오시스	390	(114.6)	-	-	-	-	348.8	33.7	50.0	22.7	-	-	-	5	-	-
삼성바이오로직스	87,582	45.4	39.6	40.1	50.7	47.8	42.0	15.8	14.3	12.4	26.1	28.2	24.9	4,557	6,144	7,057
론차 그룹	71,551	14.7	19.9	21.5	52.8	33.0	28.0	5.5	5.1	4.7	24.6	18.8	16.6	10,187	13,991	15,201
야오밍 생물기술	29,910	24.8	28.9	29.4	33.1	30.0	25.3	6.9	6.6	5.6	12.4	18.2	14.6	3,543	4,558	5,308
전체 평균		-36.4	8.0	12.4	46.1	31.1	59.8	47.8	10.5	7.5	18.8	20.4	18.4	13,276.5	18,331.8	19,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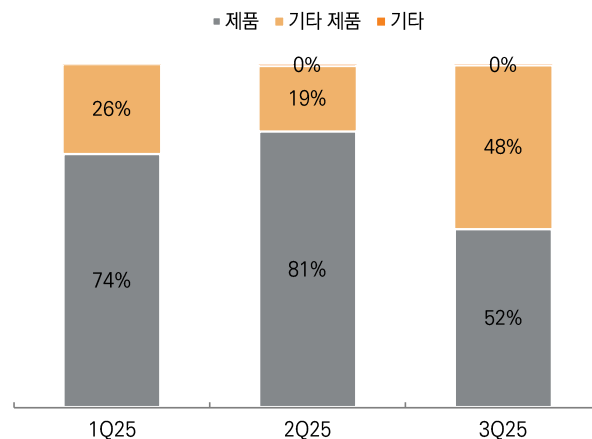
주: 2026년 1월 21일 종가기준,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3. 지역별 매출 비중 추이(연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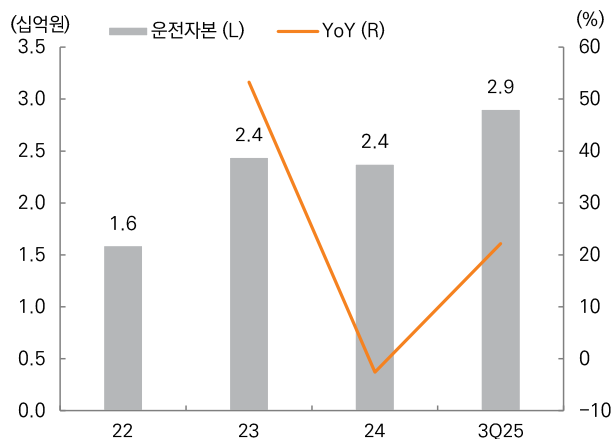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4. 품목별 매출비중 추이(별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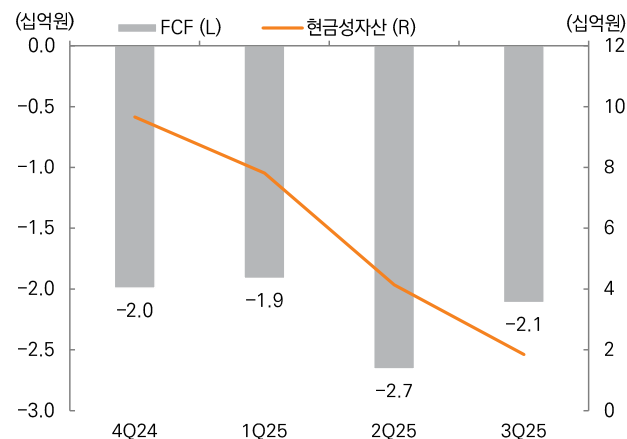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5. 운전자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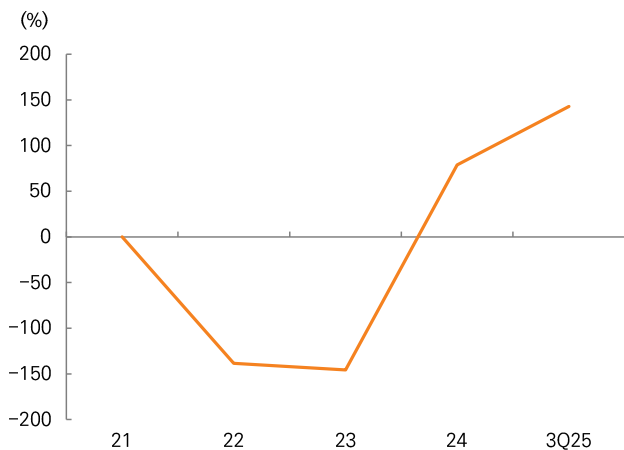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6. FCF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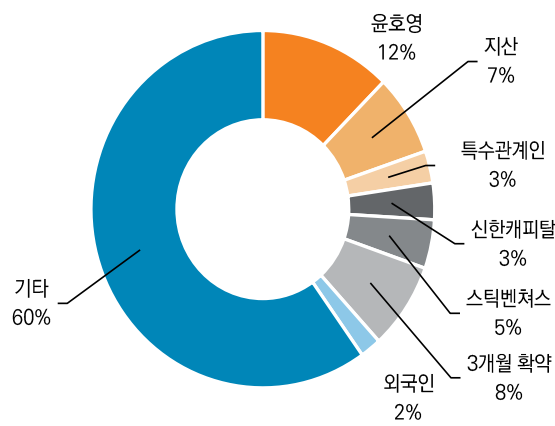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7. 부채비율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8. 지분율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 리스크

재무 리스크

아직 적자 상태라 잉여현금흐름도 적자지만 비용 증가 요인이 제한적이고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투자도 당분간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금흐름 측면에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된다. 운전자본은 20억원대로 안정적인 편이나, 향후 매출 증가 시 매출채권 및 재고자산 증가로 인한 운전자본 증가 가능성이 있다.

3Q25 기준 부채비율은 140%를 초과하나, 2025년 11월 상장으로 인한 공모 자금(264억원) 유입으로 부채비율은 30% 이하로 하락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2025년 12월 기준 현금성 자산은 약 230억원으로 예상한다. 3Q25 기준 전환사채 5.4억원(2030년 5월 만기)을 보유하고 있다.

사업 리스크

동사는 자동화 장비의 개발부터 양산까지 가능한 플랫폼을 보유한 기업으로 플랫폼 역량을 활용한 ODM 사업을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대형 기업인 R사와 ODM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시작되며, 향후 중국 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계획인데,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특성상 확장 시점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R사 외에도 L사, T사, M사 등 유수의 글로벌 대형 기업들과 추가 ODM 계약이 논의 중이다. 그러나 R사와 마찬가지로 통상 글로벌 대형 기업과의 계약은 변수가 많고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주가 리스크

현재 12개월 선행 P/S는 23배다. 분야는 다르지만 자동화 기업인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331배), 토모큐브(25배)에 비하면 저평가되고 있다

25년 11월 상장기업으로 3개월 확약(2026년 2월 13일) 물량 총 15.6%(스틱벤처스 4.4%, 신한캐피탈 3.3% 포함)의 오버행 리스크가 존재한다.

3. 기업 소개

동사는 생명공학 연구·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랩 오토메이션 장비를 개발·제조하는 기업이다. 단일 장비 판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광학·기구·전장·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핵심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자동화 장비를 빠르게 구현하는 구조를 지향한다.

동사의 제품들은 세포 배양, 분석, QC, 분리, 합성생물학으로 이어지는 워크플로우 전반에 단계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현재는 단위 작업 자동화(TTA) 장비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장비들이 결합해 전 공정 자동화(TLA) 영역으로 확장되는 전략을 갖고 있다.

동사의 차별점은 핵심 부품을 외주에 의존하지 않고 내부에서 직접 개발·통합한다는 점이다. 이미지 센서, 전장 제어 보드, 광학·기구 설계,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까지 전 영역을 내재화함으로써 성능 개선 속도와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글로벌 대형 기업과 ODM 사업을 하는 것을 핵심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

제조 플랫폼 역량을 기반으로 신제품을 빠르게 생산하여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자동화 장비를 꾸준히 만들어 내고자 하며, 이러한 전략의 기반인 생산 시설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확장할 예정이다.

그림 19. 기업 개요

기업 개요

회사명	주식회사 큐리오시스	설립일	2015년 2월 1일
법인등록번호	110111-5622801	사업자등록번호	264-81-48780
임직원 수	총원: 90인 (박사 6명, 석사 17명, MBA 2명)	매출액	3,249백만원 (2025년 반기, 별도) 4,689백만원 (2024년, 별도) 2,684백만원 (2023년, 별도)
인증	ISO 9001, ISO13485, GMP, 의료기기제조인증, 소부장전문기업, 벤처기업, NET신기술, NEP신제품인증, 글로벌 IP스타기업, 서울시 강소기업, 여성기업,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청년친화강소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지식재산권	특허 총 122건(등록 48건, 출원 74건), 디자인 8건 등록, 상표 총 66건(등록 59, 저작권 12건 등록, 원본증명서비스 12건 등록)		
핵심기술	랩오토메이션 신제품 개발 및 6개월 제품개발 사이클 구현이 가능한 6대 핵심 원천기술 CurioSystem™		
대표 기술 제품	Cellager™ (랩오토메이션 적용 가능한 4세대 자동화 라이브라이미징 시스템, 장영실상) Cellpur™ (세계 유일 상업화된 자동화 세포 농축 및 분리 시스템, NET/NEP인증) MS™ (국내 최초 KPDA 인허가 디지털생리시스템, NEP인증) CPX™ (국내 최초 합성생물학 자동화 제품, 바이오파운드리용 자동 콜로니피팅 시스템)		

본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8길 10 IS빌딩 2~5층
- 4개 층 | 부설연구소



공장

- 경기도 용인시 자인구 남사읍 원암로 400
- 자가공장 면적 3,967m² | 용인부설연구소



대표이사 소개

약력

- '04,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학사
- '11,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석박사
- '12, MIT Harvard University 박사 후 연구원
- '13, 美 Cytoners, Inc. 대표이사
- '15-현재, ㈜큐리오시스 대표이사



윤 호 영 대표이사

주요 경력

- SC는론 22년 (주공동지자), 30여 건의 해외학술대회 발표
- 동종업계 1위인 1860명씩 11명(국제)과 대다수 책임자로 참여
- 국내외 특허 70건 출원 28건 등록
- '11, 최우수 박사는문상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 '22, 2022 ICT 특허경영대상 특허청장상
- '22, 한국바이오협회 기술상
- '22,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23, 제15회 중소기업 IP 경영인대회 최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24, 기술사업화 유공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25, 중소기업 기술경영혁신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큐리오시스 (494120)

예상 포괄손익계산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매출액	5	3	5
매출원가	3	2	3
매출총이익	2	1	2
판매비와관리비	6	7	8
조정영업이익	-4	-7	-6
영업이익	-4	-7	-6
비영업손익	-3	-3	1
금융손익	-1	-1	-2
관계기업등 투자손익	0	0	0
세전계속사업손익	-7	-10	-5
계속사업법인세비용	0	0	0
계속사업이익	-7	-10	-5
중단사업이익	0	0	0
당기순이익	-7	-10	-5
지배주주	-7	-10	-5
비지배주주	0	0	0
총포괄이익	-7	-10	-5
지배주주	-7	-10	-5
비지배주주	0	0	0
EBITDA	-4	-6	-5
FCF	-4	-6	-5
EBITDA 마진율 (%)	-80.0	-200.0	-100.0
영업이익률 (%)	-80.0	-233.3	-120.0
지배주주귀속 순이익률 (%)	-140.0	-333.3	-100.0

예상 재무상태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유동자산	3	5	13
현금 및 현금성자산	1	1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0	1	1
재고자산	1	2	2
기타유동자산	1	1	1
비유동자산	4	4	5
관계기업투자등	0	0	0
유형자산	3	3	4
무형자산	0	0	0
자산총계	7	9	17
유동부채	26	26	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0	0	1
단기금융부채	25	25	4
기타유동부채	1	1	0
비유동부채	1	3	2
장기금융부채	0	1	1
기타비유동부채	1	2	1
부채총계	27	28	8
지배주주지분	-19	-19	10
자본금	0	0	0
자본잉여금	1	11	45
이익잉여금	-20	-30	-35
비지배주주지분	0	0	0
자본총계	-19	-19	10

예상 현금흐름표 (요약)

(십억원)	2022	2023	2024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	-6	-5
당기순이익	-7	-10	-5
비현금수익비용가감	4	5	0
유형자산감가상각비	1	1	1
무형자산상각비	0	0	0
기타	3	4	-1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및부채의변동	-1	-1	0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감소(증가)	0	0	0
재고자산 감소(증가)	0	-1	-1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의 증가(감소)	0	0	0
법인세납부	0	0	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0	0	0
유형자산처분(취득)	0	0	0
무형자산감소(증가)	0	0	0
장단기금융자산의 감소(증가)	0	0	0
기타투자활동	0	0	0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	7	13
장단기금융부채의 증가(감소)	25	1	-21
자본의 증가(감소)	1	10	34
배당금의 지급	0	0	0
기타재무활동	-22	-4	0
현금의 증가	-1	0	8
기초현금	2	1	1
기말현금	1	1	9

자료: 큐리오시스,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상 주당가치 및 valuation (요약)

	2022	2023	2024
P/E (x)	0.0	0.0	0.0
P/CF (x)	0.0	0.0	0.0
P/B (x)	0.0	0.0	0.0
EV/EBITDA (x)	-6.3	-4.3	0.9
EPS (원)	-2,664	-3,542	-1,287
CFPS (원)	-1,207	-1,775	-1,155
BPS (원)	-7,229	-5,356	1,533
DPS (원)	0	0	0
배당성향 (%)	0.0	0.0	0.0
배당수익률 (%)	-	-	-
매출액증가율 (%)	-	-33.0	68.5
EBITDA증가율 (%)	-	적지	적지
조정영업이익증가율 (%)	-	적지	적지
EPS증가율 (%)	-	적지	적지
매출채권 회전율 (회)	29.1	7.2	8.8
재고자산 회전율 (회)	6.7	1.9	2.6
매입채무 회전율 (회)	35.3	14.4	9.8
ROA (%)	-189.8	-122.7	-36.8
ROE (%)	72.6	51.4	100.5
ROIC (%)	-175.8	-118.1	-100.0
부채비율 (%)	-138.4	-145.7	78.9
유동비율 (%)	13.1	18.3	248.2
순차입금/자기자본 (%)	-123.8	-125.9	-49.0
조정영업이익/금융비용 (x)	-4.6	-4.6	-4.0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